

WHO 건강의 정의 '영적 안녕' 포함

'완전한 건강' 불교서 찾자

이제 영혼까지 맑고 평온해야 완벽한 건강체로 인정받는다. 건강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가 50년만에 극적으로 수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는 '영적(靈的 또는 정신의) 안녕(Spiritual Well-Being)'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건강 정의를 지난 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본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는 지금까지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Mental, 정신의학상의) 사회적 안녕을 말한다'고 정의하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영적' 안녕도 포함시켰다.

집행이사회는 오는 5월11일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넘겨 새로운 건강 개념이 들어간 현장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현장이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종교적 신앙이나, 궁거리, 전통신앙 등이 건강 영역에 포함돼 안락사 등 영혼의 안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새롭게 조명될 전망이다. 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는 인간의 '의

지'의 역동성이 강조됨에 따라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자력(自力)신앙인 불교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현장 전문에 '영적' 건강개념이 포함될 경우 의학·종교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어경운 동국대의대(신경과) 교수는 "영적 건강개념에는 종교생활 등을 통한 영혼의 평안은 물론 서양의학을 대체하기 위한 전통의학이나 궁거리, 기공법, 자연치료요법 등 민속·민간의 요법까지 새로운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건강개념 수정작업은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중동 아랍문화권과 토속신앙을 믿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앞장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종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타종교에 비해 더욱 마음의 청정(淸淨心)과 평온(平定心)을 강조해 온 불교는 참선 관법 등 가장 다양한 정신 수행법을 발전시켜와 새 건강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종교로 평가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무한히 윤회한다고 보며, 윤회가 끝나는 때는 바로 부처님이 될 때라 한다. 이 생을 거듭하는 우리 마음을 識 또는 심식(心識)이라 하는데 영혼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끊임없이 입장을 소멸하면서 심식을 맑혀 참된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영혼을 해탈시키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불교의 수행법은 곧 '마음(영혼)의

제거해야 하고, 한량없는 청정심을 발휘해야 하고, 한량없는 고통의 독화살을 뽑아야 한다.'(화엄경) "정정한 마음으로 지혜가 나가지라 지혜가 청정함을 이룸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아들이라 하며 또한 이 부처님의 아들이라 하느니라."(돈오입도요문론) 불교는 이처럼 마음의 본체를 깨달아 완전한 행복을 향유하려는 '영적 안녕'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참선 등 불교 수행법이 '영적 안녕'에 가장 적합한 건강법으로 각광 받음 전망이다. 사진은 수선회의 정진 장면

김재경 기자

지난 1월 일본 대장성 은행검사국 검사관 2명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뇌물성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기습 검사' 일정과 중점 점검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흘려 구속됐다. 오늘날 사회흐름은 접대하는 쪽이나 접대받는 쪽 모두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추세다. 공무원으로서의 윤리나 책임의식, 기업의 정직함이 어우러져야만 뇌물이나 향응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경전속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편집자 주>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시때였다. 기원정사의 부처님과 비구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보시를 받아 외도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외도들은 자기들이 예전에 받아오던 존경과 공양을 부처님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할 끝에 기원정사 뒤편에 자기들의 정사를 짓기로 하였다. 그들은 불교교단에서 방해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불교교단의 항의를 방지하고자 코살라 국왕에게 10만금을 뇌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들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 지혜가 청정함을 이룸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아들이라 하며 또한 이 부처님의 아들이라 하느니라. <돈오입도요문론> 불교는 이처럼 마음의 본체를 깨달아 완전한 행복을 향유하려는 '영적 안녕'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뇌물 부정직한 공직자는 도둑

도둑일 뿐 아니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대살치니건자소설경> 불부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돌려 시끄럽게 물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열치있게 사느라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차라리 도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리려는 일이 없거라. <육도집경> 아첨하는 마음은 도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한다. 마땅히 아첨을 자라들 속일뿐이어서 불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교경> 만약 사람의 마음이 곧으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제법집요경> 속마음이 정직하고 걸 모양이 유화(柔和)하며, 모든 사곡(邪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고요하고 견고해서 평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미증유정법경>

불교의 눈 "한량없는 청정심 내면..."

이화여대 이근후교수(신경정신과)는 "영적 안녕'에서의 영혼(Spirit)의 의미는 신체와 상대되는 개념인 정신(Mind)과 다른 '보다 주체적이며 성숙한 종교적 정신활동'을 뜻한다"고 말한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등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종교로서 교유의 정신 수행법을 발전시켜와 '영적 안녕'과 관련한 해석이 가장 용이하리란 설명. '보살마하살은 한량없이 맑은 마음을

제거해야 하고, 한량없는 청정심을 발휘해야 하고, 한량없는 고통의 독화살을 뽑아야 한다.'(화엄경) "정정한 마음으로 지혜가 나가지라 지혜가 청정함을 이룸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아들이라 하며 또한 이 부처님의 아들이라 하느니라."(돈오입도요문론) 불교는 이처럼 마음의 본체를 깨달아 완전한 행복을 향유하려는 '영적 안녕'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실직자들 희망 잃지마세요"

노·사·정 합의로 경제 3주체간의 공동협약이 6일 체결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고용조정제로 인한 대량실직 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직자와 예비 실직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각종 실업대책을 알아본다.

해직자 무료 직업교육 시립기능대학등 서울시의 직업학교들이 명퇴자, 실업자 재취업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무료. 원서교부는 11일부터 각 직업전문학교 교무과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접수는 3월2일까지 응시학교 교무과에서 받는다.

프리랜서 붐 실직한 전문인력이 프리랜서(Freelancer·자유직업가)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프리랜서 직종이 대량 실업시대 전문인력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의는 한국프리랜서그룹(02-784-4447), 프리랜서인재뱅크(02-780-5431), 서울프리랜서 그룹(02-3431-8581), 유니온(02-784-2037)

생활자금 용자 실직자들을 위해 가구당 최고 3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장기저리로 지원되고 벤처기업 창업의 경우 최고 3억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구직등록후 3개월 이내의 전직 실업자로 부양가족이 있고 25.7명 이하 국민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머니 간병위해 범복 벗어 암투병중인 절친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촉망받던 법원의 증권판사가 범복을 벗었다. 서울고법 특별8부의 강훈(44·사시24회)판사는 모시고 있는 노모(75)가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준비중인 상태에서 오는 3월 지방근무를 하게 되자 고인골에 5일 사표를 내게했다. 강판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김창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할 계획.

기업체 회장을 사재 잇달아 현남 기업체 회장들이 잇달아 사재를 회사나 회사 임직원들에게 현남하고 있다.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과 형제들이 6일 개인재산 1백50여억원을 한국도자기 법인에 현남하기로 했으며, (주)대원기공 박도문 회장이 같은 날 현금 40여억원을 회사에 입금한데 이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개인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어 우방그룹 이순목 회장은 10일 개인 소유의 (주)우방 주식 1백50만2천주(약 24억원 상당)를 임직원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가격과파 거리조성 서울시는 값이 싼 음식이나 제품을 파는 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가격과파 거리'로 지정,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 하거나 위생검사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14일까지 구청을 통해 업소별 가격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근거로 전체 5백여개 동별로 가격과파 거리를 최종 선정할 계획.

교수채용 비리 수사 확대 검찰은 11일 서울대 차대 교수 2명이 교수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포함, 전문직 임용 및 승진이나 대학원입학, 입시과정 등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국·공·사립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가짜 휘발유 파는곳 있다 '가짜 휘발유'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산업부는 9일 정유사와 저유소, 유류 수입사, 주유소 등 유류제품 생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해 동안 4만7566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0.37%인 178건이 품질규격에 미달하는 불순물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186억대 국유지 사취 기도 서울지검 특수2부는 10일 6·25 전 경중 토지문서가 사라진 경기 파주시 연천군 일대 국유지 37만여평(1백86억원 상당)을 가로채려고 국가를 상대로 20여건의 소유권소송을 벌여온 토지전문사기단 22명을 적발, 김재간씨(56·부동산매업)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생각정보
등산로 121곳 통제 봄철 산불예방 기간을 맞아 15일부터 5월31일까지 국립공원내 2백13개 등산로 가운데 북한산 보광사~진달래능선, 지리산 노고단~천왕봉 등 1백21개 등산로의 출입이 통제된다.

빨리 걸으면 장수 11일 핀란드 헬싱키대 우르호 쿠알라 박사가 19년간 1만6천명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약 30분간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한달에 6회정도 하면 사망률이 44%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청동불판 사용금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10일 음식점중앙회를 통해 항동과 청동 구이용 불판을 모두 자진 폐기토록 음식점들에 지시하는 한편 각 지방청을 통해 이행여부를 단속하도록 했다.

세상품
"화장품 자기힘"
 여성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기미, 주근깨 및 피부 유연성 저하 등을 막아 줄 수 있는 화장품 자기힘 'ROSE-PINK'가 출시됐다. 이 제품의 특징은 화장품을 자기힘 속에 넣고 5일정도 경과시키면 수분으로 이뤄진 화장품에 자장이 형성돼 화장품을 인체에 유익한 성분으로 전환시켜 피부노화 현상을 막아주는 데 있다. 가격은 20만원. (주)지트원. (02)476-0835

마/음/의/원/터

화엄동산

사는 일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현실 속의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 파산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인간 관계 속에서 빛어지는 갈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옥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살아있는 시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마음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새로운 서원을 세워가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분은 우담바라의 저자이신 소설가 남지심 선생님이십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은 애타마한 마음에서 벗어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감동에 젖게 될 것입니다. 연락기다립시다.

이달의 주제 : 좌절을 승화할 수 있는 힘...서원(誓願)

- 지도 : 남지심 선생님(우담바라의 저자)
- 소그룹 참여를 환영합니다.
-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전공부, 기도도 병행합니다.
- 회비는 월 2만원입니다.
- 문의 전화 : 607-2453 · 697-7778 · 692-4817
- FAX : 607-2453

'97년 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의 참대번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97년 한해를 총집결한 합본 '97년판을 발간합니다.

- 합본집('97년판) : 제109호(1997년. 1.1)~제156호(1997.12.24)
- 가 격 : 60,000원(발송비 별도)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대) 02)737-8881 팩스 : 02)737-0697